

7,200억 규모 '영산강 4지구 종합개발' 공사 연 2%씩 짚끔 공정...40년 걸릴판

올 완공 예정 불구 14% 그쳐...준공 전 보수공사 불가피

7년 전 착공돼 올해 완공예정이었다던 '영산강 4지구 농업종합개발'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14% 공정에 불과해 준공 시기를 전망하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1년 평균 2% 공정에 그치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준공에만 40여년이 추가 소요돼 완공되기도 전에 보수·보강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영산강 4지구 농업종합개발 공사 사업비로 270억원이 책정됐다.

7천2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전체 예산의 18% 수준인 1천303억8천만 원만이 투입됐다. 이같은 '짚끔 예산' 투입으로 전

체 387km의 사업구간 중 현재까지 7km 구간 공사만 마무리됐으며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없을 경우 나머지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시설돼 있는 용수 관관의 내구연한이 경과해 완공되기도 전에 보수·

보강공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민들은 "이처럼 대규모 국책 지역 사업이 지지부진한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마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전남 서남부 지역인 무안·함평·신안·영광 등 4개군 14개 읍·면 1만6천730ha 농지에 용수를 공급해 연간 740억원의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장성 경계~북구 오룡동 4차선으로 확장

4개 지자체장 합의

장성군 남면과 광주시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성 경계~북구 오룡동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

지난 14일 장성군청에서 열린 광주 북부권 4개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장성군 남면~북구 오룡동 구간중 2차선인 오룡동 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를 오는 4월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은 물론 정책간담회의 첫 가지적 성과라는 상징적 의미까지 지니고 있어 앞으로 4개 단체인 우호협력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이청장성군수와 이정섭 담양군수, 전완준 화순군수,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이 참석해 장성군의 국립심혈관센터 유치와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 및 제10회 담양 대나무 축제 협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광주~화순간 도로 확장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한 협조 방안도 모색됐다.

이들 4개 지자체는 민선 4기 출범 이후부터 분기별로 1회씩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화순군 보건소 '한방 기공체조 교실' 화순군 보건소가 지난 14일부터 주 2회 3개월 과정의 '한방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기공체조 교실에서는 또 혈압과 당뇨 측정 및 체성분·비만도 검사 등 건강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 도로 이름 중심 새 주소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사용법 배울 수 있게

전남도 내 도로이름 중심의 새 주소 체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전남도는 18일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해 새 주소 체계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교 4학년 지역사회 교과서 사회와 탐구 '전남도 생활편'에 수록해

새 주소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새 주소 사용법에 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지역방송이나 영화관, 각종 행사장 등에서 방영하고 시·군과 금융기관, 택배·물류업체 등 관련 단체에도 배포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정부 계획에 맞춰 오는

2009년까지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가구별 확정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다.

오는 2011년까지는 현행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 등 각종 공문서에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새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새 주소 사업은 기존의 무질서한 지번 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용,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민들 주소로 도로를 따라 집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다.

/채희종기자 chae@

정월대보름 민속 대동놀이 한마당

전남도 농업박물관 20일 오후 4시~9시

다양한 민속놀이 먹거리 체험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강석오)이 2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영암군 삼호읍 '나불도 체육공원(운동장)'에서 정월대보름 민속 대동놀이 한마당(사진)을 개최한다.

나불도 생태체험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대보름과 관련한 각종 민속놀이와 먹거리 체험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달집태우기를 비롯해 쥐불놀이, 강동 돌리기, 연날리기, 한지에 소원 글쓰기, 목포 산정3동 부너 풍물패와 함께하는 지신밟기, 자신의 나이대로 불 넘기, 더위팔기 등 다양한 대보름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

또 밤, 호도, 땅콩 등 부럼깨기를 비롯해 오곡밥 먹기, 고구마 구워먹기와 같은 먹거리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행사 참가자는 고구마 구워먹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고구마 한 봉지와 빈 강릉을 준비하면 된다. 문의 (061-462-2796)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구 인터넷 방송국 'GS TV' 3월 초 개국

주요 구성 방송

광산구가 인터넷 방송국 'GS TV'(gbs.gwangsan.go.kr)를 다음 달 초 개국한다.

'GS TV'는 각종 구 주관 행사를 다룰 '어등골 뉴스'와 의정현장, 구민기자 투고, UCC 세상, '어등 자치포럼 21' 특별 강연 등의 주요 콘텐츠로 구성된다.

광산구는 구민 기자제와 'UCC 세상'을 통해 각종 민원이나 제도 개선 사항, 미담사례, 자랑거리나 재미있는 일 등을 주민 및 전국 네



티즌과 공유한다.

구는 'GS TV'가 본 계도에 오르면 자체 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통해 음식, 문화예술, 역사, 자연경관, 우수기업 및 제품 등 지역의 특성과 자랑거리를 다룬 기획특집도

제작할 계획이다.

구는 청사 6층에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지난달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중인 서울 송파구 등 6개 우수 자치단체를 돌며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전갑길 구청장은 "주요 구성을 빠짐없이 방송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을 널리 알릴 발전의 토대로 삼겠다"며 "정직하고 사람냄새 나는 콘텐츠로 구민과 네티즌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새 얼굴

"장성 농산물 전국 명품으로 육성"

박광호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명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인 박광호(53)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장은 "지역 명품 쌀인 '365생 프리미엄'쌀의 계약재배를 늘리고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통해 장성지역 농산물을 전국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 남면 출신인 박 지부장은 1974년 농협에 입사해 목포 죽교동지부장, 해남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농림부장관상과 농협중앙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취미는 바둑.

/장성=정필수기자 bungy@

감척 어선 박물관 기증

관광자원으로 재활용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감척된 어선이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해 감척된 어선 53척 가운데 활용 가치가 있는 5척을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박물관에 기증된 어선은 소형 목선과 김 채취선, 대형 목선, 대형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등이다.

이에 따라 자연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선의 변천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화문물관리소

영화문물관리소

영화문물관리소

남성강한힘

남성강한힘

남성강한힘

전통 침·뜸

전통 침·뜸

전통 침·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미세정공

미세정공

미세정공

SONY

SONY

SONY

CH 중국문화원

CH 중국문화원

CH 중국문화원